

미국의 젊은 작가 스털링 루비 개인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4-11 14:14



사진설명 = SP2352013spray paint on canvas254 x 365.8 x 5.1 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Sterling Ruby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 빈민가의 벽은 성할 날이 없다.

매일 갱단들이 조직의 영역을 표시한다며 빈 벽에 갱단을 상징하는 문양을 그래피티로 그려넣는데 밤이면 그런 문양들로 벽이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

그러면 시 당국은 또 밤새 벽에 그려진 문양들을 지워내는 작업을 한데 겹겹이 덮인 스프레이 페인트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얼룩을 남긴다.

미국 출신의 젊은 작가 스털링 루비(41. Sterling Ruby)는 이 얼룩진 벽에서 영감을 얻어 캔버스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겹겹으로 쌓아 몽환적인 느낌의 뿌연 화면을 만들어냈다.

11일부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그는 스프레이 회화 연작과 도자나 브론즈로 만든 널찍한 대야를 연상시키는 설치조각 '베이션(Basin)' 연작 등 대표작을 선보인다.

캔버스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겹겹이 중첩한 대규모 회화와 조각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유약처리를 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낸 작품, 낡은 천 조각들을 이어붙

이거나 데님을 표백하고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기법으로 제작한 콜라주 작품 등이 눈길을 끈다.

거대한 대야처럼 보이는 도자기에 금이 가거나 부서지고 터진 도자 조각들을 담아 놓은 듯한 근작들도 만날 수 있다.

이날 낮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이 자리에 있는 지금까지의 내 작품은 재료나 기법 면에서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모두 사회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자전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최근 도자기 연작에 대해서는 "12년 넘게 도자 작업을 진행했는데 최근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했다. 내게 도자 작업은 심리치료적이고 미술치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전시는 5월 10일까지. ☎02-735-8449.

mong0716@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평양, 이상스러울 정도로 조용" < AP 평양發 >

☞ '야왕' 권상우 "후반 캐릭터 힘 빠져 아쉽다"

☞ 北, 미사일 '은닉·전개' 반복... "피로감 극대화 전략"

☞ <프로배구> 대한항공 김종민 대행, 정식 감독 승격

☞ 승무원 추천 여행지 1위는 사이판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198813>

인쇄하기

취소